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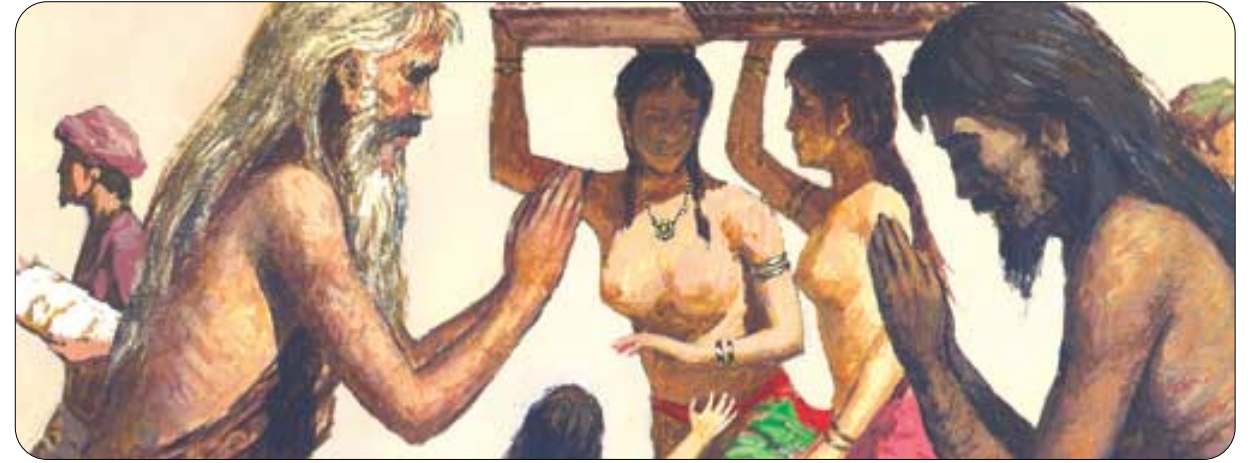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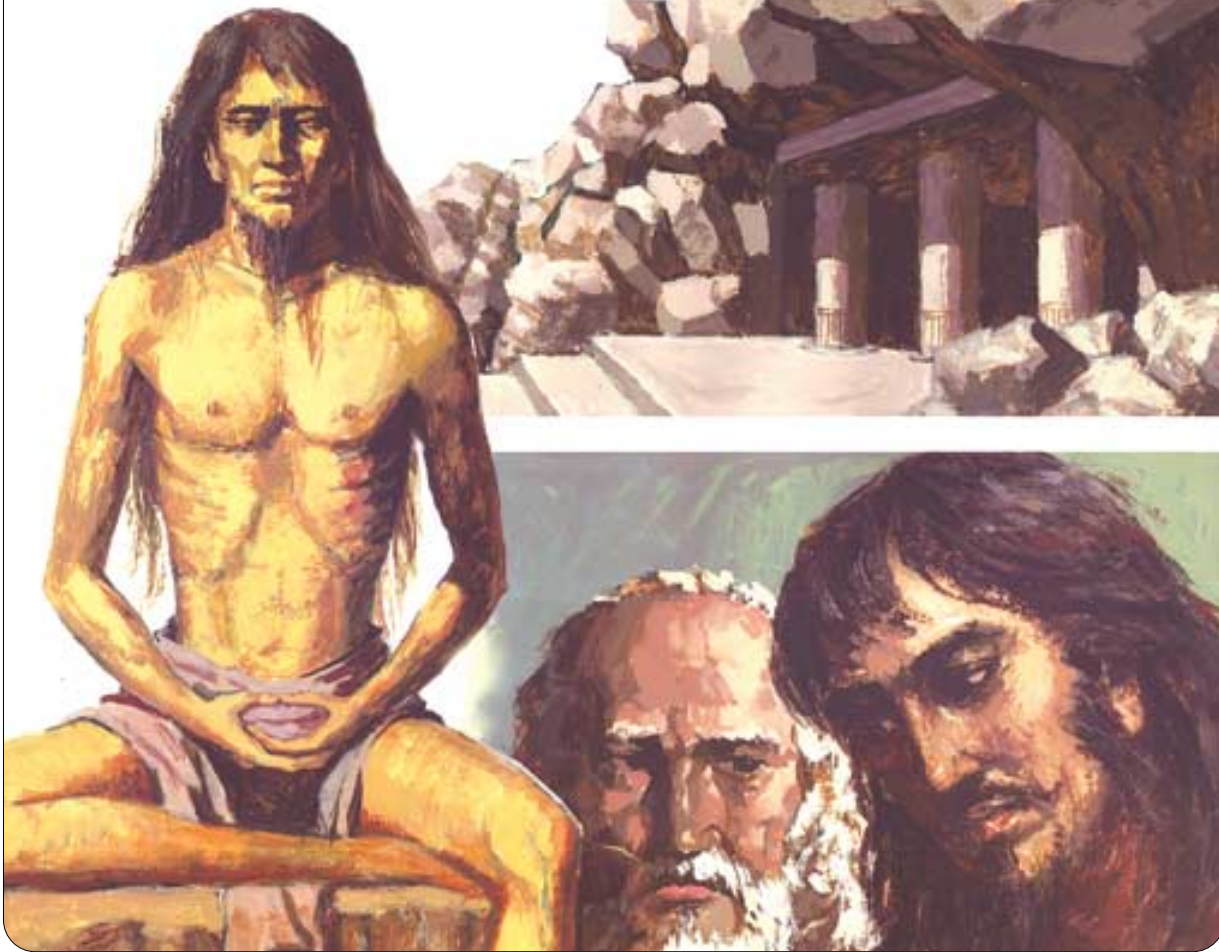
제30화 수행승 '사리풋타'



**한**편 라즈기르 가까운 곳에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한 사람으로 크게 명성을 얻고 있던 '산자야 베랏타 풋타(Sanjaya Velatthaputta)'라는 사문(沙門, Samana)이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죽은 후의 세계, 선과 악, 업보 등의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피하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의 회의설(懷疑說)을 설하고 있었다. 산자야의 제자들 중에 특출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명한 사리풋타(Sariputta)와 목갈라야나(Maudgalayana) 두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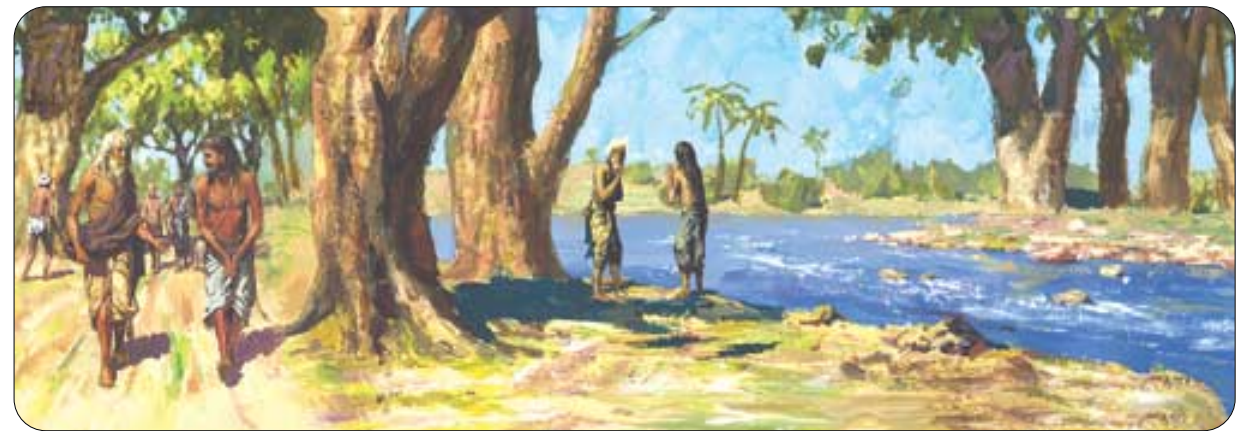
의 한사람인 아쉬바지(Asvajit, 馬勝尊者)이었다. 그때 아쉬바지는 가사(婆娑, Kasaya)를 단정히 입고 바루(鉢)를 손에 들고 성내를 돌며 탁발(托鉢, Pindapata)을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풋타는 아침공양을 마치고 수행자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라즈기르(任舍城)의 성내를 통과하다가 한 사람의 깨끗하게 생긴 수행승을 발견하고 그만 발걸음을 멈춰 섰는데, 그 수행승이란 붓다의 다섯 제자중



**“저**는 산자야 베랏타 풋타의 밑에서 수행중인 사리풋타라는 사문입니다. 오늘 우연히 스님께서 탁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감정에 저절로 이끌려 스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실례가 아닐는지.”  
“아니올시다. 만나 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쉬바지(Asvajit)이라는 비구(bhikkhu)입니다. 나는 일찌기 출가하여 고행 수도를 하던 중, 위대한 사문인인 사카족의 큰 무리를 만나게 되어 그 세존 밑으로 출가했습니다. 그 사카무니는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명령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그분이 계신 죽림정사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그 위대한 사카무니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나는 지금 논쟁을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스승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원하옵건대 그 스승님의 말씀을 조금만 전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나는 분시 어려서 아직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계승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 족 들러 드리겠습니다.  
사물은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諸法從緣生)여래는 그 원인을 말씀하셨네(如來說是因)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是法從緣滅) 위대한 사문은 이같이 가르쳤네(是大沙門說).”  
사리풋타는 아쉬바지의 계승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그 뜻을 음미해 보았다. 그리고 그 계승에 담긴 뜻을 알아내었다.  
“큰스님이시여, 그 위대한 사문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말씀 하시기에 죽림정사로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곳에 계십니까? 저 역시 스님처럼 그분의 가르침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쉬바지님, 먼저 죽림정사로 가 계시시오. 저는 꼭 함께 가야 할 친구가 아직도 산자야 밑에서 수행 중이므로 그곳으로 가서 그 친구 목갈라야나를 데리고 죽림정사로 가겠습니다.”



**사**리풋타로부터 오늘 아쉬바지를 만나서 들은 계승을 전해들은 목갈라야나는 즉시 그 뜻을 알아듣고 죽림정사로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250명의 동료 수행자들이 있었으며 또 산자야 스승이 있었다. 두 사람은 우선 동료들의 수행 장소를 찾아가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작별인사를 하자 깜짝 놀란 동료들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 다 함께 떠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내 이미 세상의 명성과 신망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젊은 사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배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꼴을 보인다면 세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웃을 것인가. 애당초 말도 되지 않을 소리이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들의 최종목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옵니까? 듣자하니 마가다 제왕의 교단을 자랑하던 우루빌바 카사라 삼형제들도 모두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위대한 사문을 따라 귀의하였고 또 그들의 일천 제자와 심지어는 마가다의 국왕마저도 그분께 귀의하셨다 하니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천추의 한이 될것 이옵니다. 청하옵건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어 저희들과 함께 그분께 귀의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들만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스승님께서 지도해 주신 은혜는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 부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시오.”  
“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 젊은 사문이 잘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마치 들여다 본 듯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속인수일 것이니 바로 내가 말하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그것인데 어찌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려고만 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는 산자야 스승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차마 스승만 혼자 두고 뒤돌아서가 너무나 미안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스승을 설득하여 같이 떠날 것을 권해 보았다.  
“스승이시여,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말씀 드리다시피 모든 라즈기르성의 사람들이 그분께 귀의하였다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내 이미 세상의 명성과 신망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젊은 사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배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꼴을 보인다면 세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웃을 것인가. 애당초 말도 되지

**산**자야 베랏타 풋타는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 두 제자의 간절한 요청을 끝내내 거절했고 결국 그의 250명의 제자들이 모두 새로운 스승을 찾아 죽림정사로 떠나는 모습을 그저 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얼마동안이나 울면서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산자야는 급기야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분해하니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다 한다.

죽림정사(Venuvana)를 중심으로 1,250명의 승가(僧伽) 인원이 확보된 것을 ‘초기 불교 교단의 완성’이라 하는데 이 숫자는 인도의 관습상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있었다.

이때 사카무니 붓다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멀리서 오고 있는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 그리고 250명의 새로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리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지금 두 사람의 대제자(大弟子)가 오고 있다. 그들은 분시 클리타와 우피뽀타라고 불리웠던 자들로 장차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갈 큰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 250명이 죽림정사로 합류함에 따라 이미 귀의하여 있던 1천명을 합하여 1,250명으로 늘어나면서 불교 교단 사(敎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승가(僧伽)의 기본적 숫자가 완결되었다.

죽림정사의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일로를 걷고 있었지만 이미 교단의 인원이 1천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잔잔한 잠음도 그치지 않았다. 그 중 붓다가 제일 늦게 입단한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에 선인 입단자들의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으로 설명하는 바 ‘먼 과거세에 아노마다르신 부처님 밑에서 발심하여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여 교단의 잠음을 잠재우게 하였다.  
사리풋타와 동시에 입문한 250명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는데 그중 목갈라야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입주일이나 늦게 아라한이 되었고 후일 교단의 지도적 위치를 큰 중요한 인물인 사리풋타는 이들보다 반달이나 더 늦게 아라한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